

Primary Pulmonary Ewing's sarcoma/Primitive Neuroectodermal Tumor in 67-year-old man

Korea university, Division of Respiratory and Critical Care Medicine

*Eunjoo Lee, Eunsil Ha, JungHa Kim, Kyoungju Lee, Jinyung Jung, Seunghyeun Lee, Sejoong Kim, Sungyong Lee, Jehyeong Kim, Sangyeub Lee, Chol Shin, JaeJeong Shim, KwangHo In, Kyungho Kang, Sehwa Yoo

Ewing's sarcoma usually is identified as a primary malignancy of bone affecting children and young adults. Extraskelatal Ewing's sarcoma(EES), a branch of neuroectodermal tumor(PNET) is a very rare soft tissue sarcoma. We have encountered a case of intrapulmonary small round cell tumor consistent with pPNET, and report him herein, together with the finding of cytogenetic analysis. A 67-year-old man visited with lung mass incidentally detected on chest radiography taken during national insurance screening program. Using computed tomography, bone scintigraphy and positron electrophotometer we confirmed the mass primary pulmonary origin. We conducted percutaneous needle aspiration cytology. We discovered positive reactivity in the Periodic Acid Schiff (PAS) stain and MIC-2 immunoreactivity in immunohistochemical stain. Ultimately Fluorescence in-situ hybridization (FISH) was performed and revealed EWSR1 (Ewing sarcoma breakpoint region 1) 22q12 rearrangement and the diagnosis was confirmed pathologically and genetically. After resection of the mass lesion the patient is in the course of chemotherapy.

폐와 간의 동시성 중복암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임소연 · 심윤수 · 이진화 · 김태현 · 천은미 · 장중현

다발성원발성악성종양은 원발성단독암에 비해서는 그 발생이 드물고 발생 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최근 들어 발달된 진단과 치료 방법 및 수명 연장으로 그 증례가 증가하고 있다. 폐암을 동반하는 중복암은 전체 중복암 중에 약 10%로 그 빈도가 낮고, 폐암과 간암이 병발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저자들은 폐와 간의 동시성 중복암 환자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73세 남자가 수개월 동안 지속된 기침이 열흘 전부터 악화되어 인근 의원에서 흉부 X-선 촬영 결과 우상엽에 부분적 무기폐를 보여 본원으로 의뢰되었다. 환자는 75갑년의 흡연자로, 10년 전에 당뇨병을 진단 받아 경구 혈당강하제를 복용 중이었고, 1년 전부터 고혈압으로 약물 복용 중이었으며, 아버지가 간암으로 사망한 가족력이 있다. 기관지내시경 결과 우상엽의 앞구역 기관지를 막고 있는 종괴가 보였고, 우상엽의 꼭대기구역 기관지 점막에 다발성 결절이 보였다. 우상엽 앞구역 종괴에 대한 생검 결과, 편평세포폐암을 진단하였다. 폐암의 병기 결정을 위한 복부초음파 결과, 간의 S4에 지름이 1.9cm인 저음영의 경계가 불분명한 병변이 관찰되었고 내부에 고음영 부분을 포함하고 있어 전이가 의심되었다. FDG-PET에서 원발성간암은 잘 보이지 않으나, 전이성간암은 잘 관찰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환자의 FDG-PET에서는 간에 특이사항이 없었고, 동측 기관지주변립프절 전이가 의심되었다. 역동적 간 CT를 추가로 촬영한 결과에서도 간의 악성종양이 의심되어, 초음파 가이드로 간 병변에 대한 생검을 시행한 결과, 원발성간암(hepatocellular carcinoma)을 진단하였다. 간암 주변의 간 조직에 염증 반응이 있었고, 혈청 B형간염바이러스 표면 항원 (HBsAg)과 항체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었으나, B형간염바이러스 핵 항체 (anti-HBc antibody IgG)가 양성이어서, 저역가 B형간염바이러스 보균 상태였다. 간암에 대해서 고주파절제술을 시행하였으며, 폐암에 대해서는 우상엽 절제술을 시행하였다. 수술 후 폐암 병기는 T2N0M0, stage IB로, 간암과 폐암에 대하여 추적 관찰 중이다.